

IMF 이전에 채란업 이미 부도예고

— 홍 보 부 —



「본고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란업의 위기극복 방안을 진단해 보기 위해 적정사육 수수 유지를 경영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채란업을 영위하고 있는 본회 천안연기채란분회 이계순 분회장을 본지 김용화 편집장이 지난 9일 직접 만나 분회 회의실에서 나눈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김용화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채란업은 IMF시대를 맞이 이전에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2배정도 가까이 상승하자 사료가격 인상부터 시작하여 각종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생산비가 높아졌는데 일시적으로 계란

생산이 적어 120원대를 보이자 마치 채란업은 IMF시대와는 무관한 것처럼 외부로 비춰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난가가 하락하면서 이제부터 IMF시대를 실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채란업의 현 실상을 진단해 보고 이어서 문제점 분석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이계순 분회장



△ 김용화 본지 편집장

△ 이계순 : 저도 채란업을 하고 있는데 '90년 들어 농가의 변화에 대해 놀랄 때가 많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었으나 UR협상이 표면화 되면서 국제경쟁력강화란 명분에 쫓기어 정책자금을 만들어 용자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규모나 시설이 커지고, 신규업자들이 생겨나 이렇게 생산된 계란이 어떻게 다 소비가 되겠는가라는 반문까지 했습니다.

정책자금 투입은 양계업계로 볼 때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분배과정에서 국제경쟁력강화에 부합될 수 있는 목표 선정이 제대로 안되었을 뿐 아니라, 수시로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오류를 범하면서 영세한 기존 채란업자와 신규참여업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나뉘어지면서 소외감이 생겨났고, 과잉생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업계가 분열되는 조짐까지 보였던게 사실입니다.

▲ 김용화 : 원론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은 반대하지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 현재 채란농

장의 경영과 생산현황을 들었으면 합니다.

△ 이계순 : 경영과 생산현황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계란출하를 놓고 볼 때는 모두다 같다고 보여집니다. 환율이 올라간 이후 사료가격이 평균적으로 45%가 인상되었고, 여기에 기름값, 전기사용료, 약품비 등도 인상폭이 커서 계란생산비는 대략 80~90원선까지 나오고 있는데 고시가는 지난 12월부터 100원대에 진입하여 1월에는 120원선까지 상승은 하였으나 2월 들어 급격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도 위축되어 실제 농장수취 가격은 생산비선 이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료구입이 어려워진다 하니까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와 확신을 한 나머지 입추를 늘리고 노계도태를 미루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다보니 생산이 과잉되어 채란인들이 꼭 손해를 보고 생산량을 줄이는 일을 답습하고 있어 영세농가는 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채가 많은 농가는 나름대로 이자 갚기에 급급하여 덤핑출하

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용화 : 채란인들이 소비규모에 맞게 스스로 생산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 생산추이에 관한 통계자료와 소비통계자료가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정부도 각종 규제를 없애는 마당에 생산조절을 임의로 할 수도 없지만 항상 과잉되어 농가가 도산지경에 이르러서야 대책을 세우니까 일시에 생산량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방향이 민주주의를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경제정책은 상당부분 없어지리라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양계업에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농장경영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 이계순 : 양계업은 분명히 1차산업입니다. 계란을 팔아 양계농가가 먹고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식량산업만큼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계업이 제조업과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양계업자는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를 검토한 후 재투자냐, 전업이나를 스스로 결정짓게 해야 합니다.

환율문제가 터지니까 규모가 크고, 부채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볼 때 양계업은 규모보다도 내실을 기해나가는 가운데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읽

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계업도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엄격하게 자율적인 경쟁으로 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정책자금을 오로지 회수를 염두에 두고 담보력만 따져 지원을 하니깐 너도나도 끼어들어 사업자금도 없으면서 정책자금 바탕위에 리스, 각종 융자금을 끌어다 투자를 하니깐 수십년씩 양계업을 하던 영세농가는 열심히 하면 잘산다는 진리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탈락자로 전락되고, 닭의 생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료와 물만 먹이면 저절로 닭이 알을 낳는 것으로 믿고 뛰어난 결과 질병만 연, 유통혼란이 초래되는, 즉 시장경제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채 투성이인 농가만 양산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양계업의 질적인 발전은 이룩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 김용화 : 환율이 폭등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양계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원가가 비싸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생산비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로 더 악화가 되어 사료의 경우 생산비 중 약 66%까지 비중이 높아져 이 제야말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하는 문제와 생산량을 적정히 유지시켜 사료낭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이계순 : 우리가 생산비절감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까. 경제위기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사료, 약품, 기타 수입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제가 그간 느낀 경험으로는 환율이 내려가도 자재값은 예전과 같이 같은 폭으로 인하되기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계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품목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계란생산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제경쟁력이 더 낮아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게 계속 유지된다면 당연히 수입도 감소하겠지만 언제 변동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장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생산비 절감과 과잉생산의 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자금은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이 되어 내실없이 생산만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될 축산경영자금 지원시 생산감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산하는 농가에 우선권을 준다는 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용화 : 우리나라 채란업도 2·3차 산업과 같이 부채율이 높고 과잉투자로 인해서 구호는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내걸었지만 결과는 농가 부실을 초래하여 경쟁력제고는 묘연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다시해서 내실을 기해나가는 대비책이 절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끝으로 부언해주실 내용이 있으면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계순 : 모두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니까 과연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반문들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늘 입버릇 처럼 이야기 해왔던 역할분담을 좀더 철저히 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업계가 나아가갈 방향을 경청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지 정부가 양계업계를 이끌고 가겠다는 식의 과거와 같은 행정은 없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업제도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는 요구를 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지도 않아 금일과 같은 혼란과 부실농가의 양산을 배출하게 되니까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양계인들이 속도는 늦을는지 몰라도 자생력을 키워가며 능력에 맞게 재투자를 하면서 양계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계업에 대한 지원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정책자금투입은 공공부문, 즉 유통, 계분, 난좌, 질병, 연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은 농가가 전담하고 그 산물출하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이 향상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생산여하에 따라 또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구조 정착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화 : 채란업의 위기는 이미 IMF가 오기전부터 과잉투자로 예고가 된 셈이라 진단이 됩니다. 앞으로 채란인들은 이사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내실을 쌓아가는 작업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양계**